

逆유토피아시대 책의 불행한 미래

레이 브래드버리 지음 「화씨 451」

미지의 앞날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호기심이 일궈낸 SF소설의 고전 가운데 하나로, 지난 53년 미국서 출판돼 밀리언셀러로 기록됐고 영화로도 제작돼 국내에 소개된 바 있는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씨 451」(강창래 옮김)이 최근 번역 출간돼 눈길을 끈다.

요즘 독자들로부터 한창 관심을 끌고 있는 SF소설의 초창기 작품에 속하는 이 소설이 유독 흥미로운 것은 과학기술의 변모를 다룬 대부분의 소설들과는 달리 삶의 본질과 문화의 변질을 우려한 철학적 요소가 짙다는 데 그 이유가 있고, 매개체로 책을 선택했다는 점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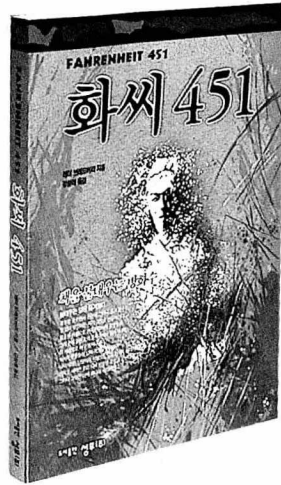
과거의 모든 역사가 왜곡된 채 독서가 금지 시된 시대를 사는 주인공 몬테그는 “월요일엔 밀레이를, 수요일엔 휘트먼을, 금요일엔 포크너를 태우는”, 즉 책을 태우는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며 살아가지만, 클라리제란 남다른 소녀를 만나면서 가치관의 혼돈을 경험한다. 어느 날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책이 숨겨진 집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몬테그는 책을 빼앗기지 않으려다 그만 분신하고만 한 여자의 집에서 몇권의 책을 숨겨 집으로 가져온다.

여인의 죽음에 심한 충격을 받고 결근하려는 몬테그를 찾아온 방화서의 비티서장은 책을 소지하는 것이 범법이 된 이유를 설명한다. 인구가 늘고 세상의 변화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예전의 책은 정보전달의 기능을 상실

독서는 물론 책소지가 불법인
25세기의 방화수 가이 몬테그는
책을 불사르는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책을 지키려 분신자살한 여인과
전직 영어교수인 노인을 만나
자신의 그릇된 행위를
반성하고, 결국엔 방화서장
비티를 살해하는데...

하고 단순하거나 말초적인 내용을 담은 그릇이 돼, “햄릿이 단 한페이지로 축약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기적인 출판업자들이 주범이었다고 말한다. 또 책은 모든 인간이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난 인간과 그렇지 못한 인간을 차별시키는 무기가 돼 분쟁의 씨앗이 될 뿐더러 다른 사람과 집단의 이익을 침해해 논쟁을 불러일으켜 결국 독서는 물론 책의 소지 자체가 불법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몬테그는 “책이란 인간에게 해악이며 따라서 불이란 아름답고 실제적인 항생물질로 전부 소각해야 한다”는 비티서장의 주장을 듣고도 역사를 왜곡하고 단절시키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 그런 그



의 앞에 퇴직한 영어교수인 노인 파버가 나타나 몬테그는 인쇄기를 구해 복사본을 만들어 배포할 ‘역모’를 꾀하지만, 아내 밀드레드의 신고로 자신의 집을 불태우고 서장 비티마저 살해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만다. 추적을 뿌리치며 도주를 하던 그는 그랜저를 비롯한 일단의 반사회적(?) 인사들의 모임과 뜻을 같이 하고 자신이 진정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된다.

책이 연소되는 온도 화씨 451°를 제명으로 한 이 소설은 단순한 공상과학소설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 로봇사냥개, 에스컬레이트 도로 등과 같은 무대장치 속에 감춰진 작가의 의도는, 어떤 형태든지 힘에 의한 억제로 움직이는

사회는 끝내 파국을 맞는다는 것일런지 모른다. 체제를 수호하려는 보수세력인 비티서장의 힘이 밀드레드와 같은 복종집단을 이끌 수는 있지만, 정의를 복원시키려는 파버·그랜저·클라리제의 변혁의지를 완전히 억압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이 50년대 미국사회의 메카시즘에 충격을 준 것은 아닐까.

그런 점과 함께 이 책을 통해 곱씹어볼 만한 것은 비티서장의 말처럼, 우리의 생활패턴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식의 변화를 케도수정할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책의 미래가 우려되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브래드버리의 가상이 진행중인지도 모를 일이다. 종이에 활자가 찍힌 것이란 책에 대한 고정관념의 틀이 CD롬이니 디스크북이니 하는 이른바 전자출판물에 의해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고, 앞으로 종이책의 독특한 맛은 독자들의 구미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벽면의 대형TV나 컴퓨터에 매달려 살아갈 사람들에게 책은 그저 귀찮고 재미 하나 없는, 그리고 따분한 천덕꾸러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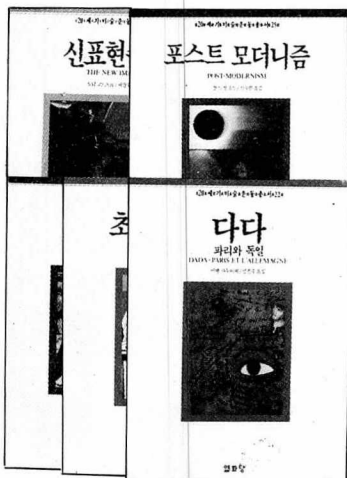
이미 40년전에 책의 미래를 책으로 점친 브래드버리의 애정어린 우려를 노파심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성무 / A5신 / 258면 / 4200원

— 최태원 기자

금세기 미술운동의 다양한 흐름

「20세기 미술운동총서」 3차분



구분짓기가 바빠 정도로 다양하게 전개되는 20세기의 미술운동 흐름을 정리해 현대미술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기획의도로 출간되고 있는 시리즈의 3차분 가운데 다섯권이 먼저 출간되었다.

간결한 문체로 요약된 해설과 원색도판·자료사진, 그리고 연보·도판목록·역사후기 순으로 꾸며진 각 책들은 급격한 산업화와 전쟁·물질문명의 풍요로움을 화폭에 담은 20세기 미술흐름의 단면들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다.

「초현실주의 1」에 이어 나온 「초현실주의

2」(로베르 르벨 지음, 김정란 옮김)는 2차세계대전 발발 전 전개된 초현실주의의 경향을 담고 있는데, 알베르토 자코메티를 비롯한 화가들의 독특한 오브제를 이용한 작품들을 접할 수 있다.

20세기초 대두된 다다운동은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일본·라틴 아메리카 등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유행된 사조로, 「다다-파리와 독일」(미셸 사누이에 지음, 임진수 옮김)에서는 트리스탄 차라와 프란시스 피카비아에 의해 전파된 파리에서의 다다운동과 1917년 취리히 다다운동으로부터 유래된 독일 다다이즘을 다룬 책으로, 현대의 모든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다다이즘의 맥락을 보여준다.

다양한 형태의 20세기 예술운동 가운데 선구적 위치를 차지하면서도 일반의 이해도가 극히 부족한 빈 분리파를 소개한 베르너 호프만의 「빈 분리파」(김선혜 옮김)는, 아카데미

즘에서의 해방과 예술의 무차별성을 주장하며, 총체예술을 역설한 이들의 예술정신을 엿보게 한다.

독일 표현주의의 맥을 이어 60년대 이후 급격히 확산되었던, 비인간화·기계화된 인간을 냉소적으로 바라본 신표현주의를 다룬 「신표현주의」(토니 고드프리 지음, 배경숙 옮김)와 아직도 유효한 예술적 경향으로 정의하기조차 힘든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제로 한 「포스트 모더니즘」(찰스 쟁크스 지음, 신수현 옮김)도 이번에 함께 출간됐다. 조만간 출간될 3차분의 나머지 다섯권은 「미니멀리즘」 「해프닝」 「바우하우스」 「여권신장파」 「글라스노스트」이다.

열화당 / A5 / 92면 내외 / 각 4000원